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본 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부로 협회 명칭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변경된다.

협회는 이미 지난 5월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명칭 변경에 맞추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구상과 회원사와 정부 간의 다리 역할을 더욱 탄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협회 명칭 변경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먼저 그동안 정보통신 전반에 걸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명칭상 정보통신 서비스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 명칭 변경으로 인해 정보통신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CI를 새롭게 제작하는 한편 대 회원사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5월 1일자로 단행한 조직 개편 역시 이러한 협회의 방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3부 16개 팀 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10개 팀으로 줄이는 한편 분야별 업무 특성을 살려 팀을 통합, 재배치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관리실에서는 사업관리팀이, 전략사업실에서는 사업 정책팀과 기기부품팀이 신설됐다.

보다 슬림화 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살린 조직 개편으로 협회는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한 회원사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빠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마련, 회원사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대 회원사 서비스를 살펴 보면, 보다 회원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협회는 회원사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사들의 요구를 정부에 적극 반영하



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협회 회장단과 정보통신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간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협회지의 무료 광고와 회원사 홍보 코너를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회원사들의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홍보 전략을 회원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 정책팀은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사업 추진, 정보통신기술 및 제품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 제8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개최, 회원사 이회 증진 및 협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국내 정보통신 관련 전시회/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 과년도 수상자 사업화 실태조사, 벤처창업 정보 구축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과 대 회원사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의 명칭이 “정보통신산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장 이에 어울리는 팀은 역시 ‘기기부품팀’이다.

인터넷 정보대전은 물론 리눅스 사업과 각종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기기부품팀은 6월 22일 경에 열릴 ‘차세대 IT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기부품팀은 또한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PDA 산업은 물론 인터넷정보가전에 대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정보대전 EXPO 2001 개최, 인터넷정보대전 기술자격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며, 이 밖에도 인터넷정보대전산업협의회를 통하여 전시회·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법·제도 등 산업지원 방안 강구, 인터넷정보대전 대표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정보대전표준포럼 운영을 통하여는 인터넷정보대전 관련 기술정보 수집, 분석 및 보급활동, 인터넷정보대전 관련 규격 개발 및 적용, 인터넷정보대전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리눅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기술 방향 선도를 위한 국제 전시·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이용 환경별 리눅스 기반 정보화 비용효과 분석, 리눅스관련 최신기술자료 및 국내외 동향 등의 수집 및 배포, 기술 교류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업계 협력 강화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국내라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해외사업팀을 상무 이사 직할팀으로 분리,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구축 사업, 정보통신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IT 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살펴 보면, 해외유관단체와의 IT 산업교류협력 및 수출촉진지원사업 추진, 제7차 아시아 정보통신산업 교류회(ATIE) 행사 개최, 해외진출 지원 워크숍 개최 및 산업 시찰 추진, 해외수출촉진협의회 추진, 해외시장 정보제공 추진, ASEAN+3 정보통신 민간협의회 개최 등의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정보 표준화추진,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체 DB구축 및 제공, 외국인 국내정보통신산업 투자동향 정보제공,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시장, 정책, 기술동향 자료제공,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통계자료 제공, 정보통신전시회·회의 등 행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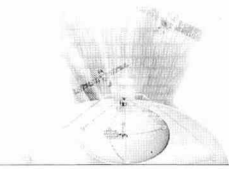
정보통신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으로는 미국 Wireless2001전시회, 러시아 SVIAZ-EXPO COMM MOSCOW 2001 전시회, 싱가포르 Communic Asia 2000 전시회, 브라질 EXPO COMM Brazil 전시회, 미국 PCIA GlobalXchange 2001 전시회, 중국 PT/EXPO COMM CHINA 2001 전시회, 홍콩 IT EXPO 2001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IT 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은 한·중남미 관련 업체간 기술 교류 및 상호 Business 기회의 확대, 현지 정부 및 기업 SI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외국은 아니지만 대북 경협 민간협의회 '남북IT 민간협의회' 역시 협회내 사무국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업팀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인증마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마크) 신청·접수 및 인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 신청 접수 및 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마크 국제화 사업으로 국제 TRUST MARK 표준화 사업, 인터넷상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인증마크 운영기관간의 국제협력 추진, 국제 TRUST MARK 운영기관간 상호인정사업,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정사업자 사후관리 추진,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정사업자 인식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S/W 로 각광받고 있는 ASP의 경우 ASP 사업팀이 있어 CEO 및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ASP/IDC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기업 공동 IR 개최, ASP 사이버 홍보관 운영, ASP 인증 감리 제도 및 SLA 작성지침안 보급·운영, ASP 사내 전문가 및 인증심사원 양성, ASP/IDC Initiative(국제기구)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팀의 경우 다양한 신용정보관리 및 운영체계 정립, 국·내외 전문가 초빙, 신용정보 관련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복지정보 통신요금 수혜자 공동 DB 구축, 개인 통신요금 연체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 역시 협회 내 조사통계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조사 통계팀의 경우 정보통신산업통계실태조사를 통하여 2000년 기준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정보통신 주요품목 동향조사 및 월보 발간(6개기관 공동조사), 정보통신산업 고용동향조사 및 분기보고서 발간, 2001년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올해로 9회째) 개최, 정보통신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국·영문판 비교 통계자료 발간, 정보통신 서비스 및 상품분류 품목 해설서 발간 및 DB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말기 사업팀을 찾아 오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

단말기 사업팀은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분실핸드폰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분실핸드폰 신속한 전달체계 확립, 분실핸드폰 재사용 제고 방안 등을 강구, 실행하고 있다